

# 원유의 기간계약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국제석유시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계속 증가세를 보여오던 현물거래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기간계약(Term Contract) 거래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또 최근의 기간계약은 과거의 기간계약형태와는 그 내용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2차 석유위기후 80년대초 高油價시대에 나타났던 기간계약은 안정공급의 확보라는 목표를 위해 고정가격·고정물량의 거래를 했던데 비해 현재의 기간계약은 현물가격과 직접 연계되어 있을뿐 아니라, 물량인수에도 신축성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지난 86년 油價폭락의 여파로 현재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심은 시장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량인수를 할 수 있는 공급관계수립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신축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기간계약의 구조와 내용은 매달 또는 매분기별로 물량 및 가격조정에 신축성이 있다는 점에서 80년대 초반의 기간계약과는 상이하다.

최근의 불안정한 석유시장에서는 정제 및 현물시장의 가치가 급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제업자 및 석

유수출국들은 현재의 기간계약가격을 일반시장추세와 맞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약조건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반면, 사우디, 베네수엘라같은 산유국들은 고객들과 固定인수물량을 확정하기 보다는 引受물량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일부유종에 대한 수요가 계절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과거 未선적물량에 대한 페널티는 현재 실질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이제 구매자들은 기간계약가격이 현물시장추세에서 벗어날 때는 물량확보에 대한 두려움없이 선적을 지연시키곤 한다. PIW지가 16개 주요수출국의 주요기간계약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축성있는 기간계약에서의 계약내용은 판매자에 따라 또 일부 경우에는 고객에 따라 상이하다.

평균 계약물량은 5.5萬b/d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PIW지가 조사한 190개 기간계약중의 60%는 5萬b/d이하와 소규모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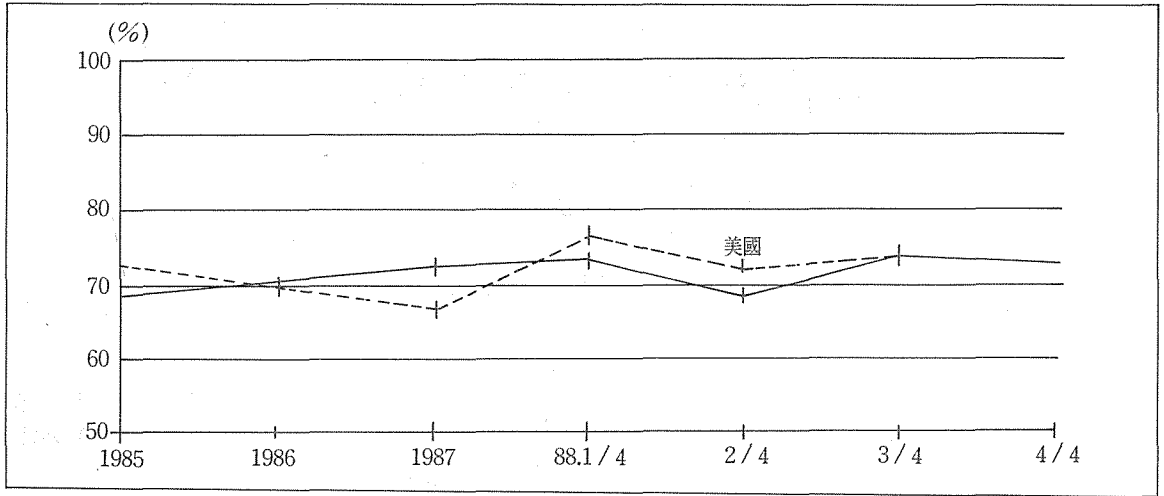
새로운 기간계약형태는 石油수출국들이 다양한 고객

기간/현물去來 비중 比較

(單位: %)

		1985	1986	1987	1988			
					1/4	2/4	3/4	4/4
美 國	기 간	72.8	69.4	67.3	76.9	72.9	75.2	
	현 물	27.2	30.6	32.7	23.1	27.1	24.8	
日 本	기 간	68.6	70.5	72.8	73.9	69.0	74.6	73.9
	현 물	31.4	29.5	27.2	26.1	31.0	25.4	26.1

기간계약 거래비중추이



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석유수출국들은 소규모물량으로 보다 많은 정제업자들과 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PIW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계약규모가 20만b/d를 넘어서는 것은 이란의 한 계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우디와 이루어진 것이다.

대부분 정제업자들에 의한 소규모물량선호는 정제원료로서 原油의 선택에 신축성증대와 공급가격위험분산을 위한 다양한 油種선택 선호등에 기인한다.

기간계약에 있어 새로운 formula 가격결정방식(현물가격연계) 도입과, 先物, 先渡市場 헤징도구 이용가능성으로 구매자들은 산유국 國營石油會社와 직거래를 현물시장에서 트레이더와의 거래만큼이나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많은 전통적인 石油去來業者들의 위치를 대체하게 되었다.

大型石油去來會社와의 대규모物量 기간계약체결 양상은 현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이러한 형태거래는 美國시장의 수입금지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이란에 한정되어 있다.

리비아, 이집트 같은 몇몇 산유국들은 특정한 달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잉여물량판매를 위해서 때때로 大型石油去來會社와의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회사를 통한 거래는 주로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의 정제업자들과 직접 기간계약을 맺게 될 때는 이러한 거

래는 대개 필요없어진다.

즉, 콜롬비아, 에콰도르같은 南美산유국 및 이라크 및 北예멘 같은 中東산유국들은 美國지역에서 더많은 정제업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간거래사를 통한 판매는 축소시키고 있다.

기간계약판매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추세는 石油판로 확보를 위해 소비국 하류부문에 진출하는 것이다. 리비아는 自國 잉여물량을 팔기 위해 이탈리아와 합작 투자한 Tamoil社를 활용하고 있다.

사우디의 美國 합작기업인 Star Enterprise社는 현재 사우디 原油를 고급정제수요에 필요한 경질유로 스와 프하는데 이용되고 있고, 사우디가 美國에 石油를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직접 현지판매자로 이용될 수 있다.

PIW지가 조사한 190個 기간계약중 70%는 브렌트, 두바이 등 주요油種의 현물가격과 연계된 시장연계 formulas 가격결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formula자체가 現物價格變動에 민감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거의 모든 石油수출국들은 이러한 방식을 月 및 분기별로 조정하고 있다. 장거리 石油수출국인 사우디의 경우는 매달 formula 價格을 檢討하는 반면 이라크,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등은 단거리인 美國 및 유럽판매를 위해 매분기 계약조건을 재검토하는 傾向이 있다.

또 소련, 이란, 리비아 같은 산유국들은 카고별로 계

石油수출국의 石油공급 형태('88년 중반)

(單位：千 b/d)

	Formula	遡及算定	Posting	현물 및札入	제품수출	해외정제	네트백가격差	위탁정제	持分原油	바 터	輸出計
사 우 디	3,500			100	600	100	100			600	5,000
이 란	600							300		600	1,500
쿠 웨 이 트	300			250	600	200			150		1,350
중 립 지 대	150								600		300
아 부 다 비		700			100				350		1,400
두 바 이				50							400
카 타 르	250							30			280
이 라 크	1,650				150		100			500	2,400
오 만		350							200		550
에 멘	75								125		200
알 제 리				100	200					200	500
리 비 아	150			200	100	100		50	100	200	900
이 집 트			250						150		400
사 리 아							100		100		200
나이저리아				100			500	100	450	100	1,250
앙 골 라				150					150		300
가 봉									150		150
인도네시아		300							400		800
말레이시아		200		50				70	100		420
브루나이		100							100		200
中 國		250		50	100			100			500
소 련				600	600			100		100	1,400
백 시 코	1,100	180			95	40					1,415
베네수엘라			300		550	650					1,500
콜롬비아	40			20	70				70		200
에콰도르	120			30					50		200
OPEC計	6,720	1,000	300	930	2,300	1,050	700	480	2,250	2,200	17,930
總 計	7,935	2,080	550	1,800	3,165	1,090	800	750	3,245	2,300	23,715
구성비(%)	33	9	2	8	13	5	3	3	14	10	100

약조건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집트는 매 15일마다 고시가격을 설정하고 인도네시아는 월별로 가격을 설정한다.

또한 소금적용 가격결정방식도 총기간계약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PIW지 조사에 나타났다.

앞으로 국제석유시장은 거래형태에 있어서 기간계약 거래와 현물거래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고, 기간계약도 가격과 물량면에서 신축성이 허용됨으로써 현물거래의 이점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유국의 소비국 하

류부문진출과 소비국의 산유국 상류부문 참여 등의 통합이 진전되어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협력이 더욱 진전될 전망이다.

따라서 원유거래에 있어서 트레이더의 역할은 축소되고 산유국·소비국간의 직접거래형태인 기간계약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원유도입에 있어서는 굳이 현물계약과 기간계약을 구분하여 현물도입을 장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주간 석유뉴스>